

광주FC 새 사령탑 이정규 감독

“악재는 팀워크로 뚫는다… 올해 목표는 ‘파이널 A’”



광주FC의 새 사령탑을 맡은 이정규 감독이 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3년간 수석코치 역임…기존 시스템에 ‘이정규 색’ 입히기 과제
상반기 선수 등록 불가…나이 불문 경쟁 통해 기회 보장할 것
26일까지 태극서 1차 동계훈련…2월1~15일 남해서 2차 훈련

광주FC의 이정규(사진) 감독이 승리로 가는 ‘과정’과 ‘공간’을 강조했다.

이정규 감독에 이어 광주FC의 제8대 감독으로 선임된 이정규(44) 감독이 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가졌다.

광주 감독으로 처음 공식 인터뷰에 나선 그는 “강기정 구단주님, 노동일 대표님과 구단 모든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선택해 주신만큼 책임감을 갖고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정규 감독은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이정규 사단의 수석코치를 맡아 광주 역사를 함께 만들었다. ‘정효불’로 대표된 광주의 축구 스타일에 자신의 축구를 입히는 게 이정규 감독의 숙제다.

이에 대해 이정규 감독은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축구가 기존 감독님하고 비슷한 게 많다. 큰 틀의 시스템은 유지하되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하고, 추가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며 “나 역시도 공간을 소유하고 공간을 압박하고 공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공간’을 강조했다.

그는 ‘과정’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정규 감독은 “내 축구를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동계훈련 가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과정을 충실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며 “감독이라는 자리는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 결과를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지난 4년 광주가 결과만 바라보고 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과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고, 그 과정을 만드는 데 굉장한 노력이 있었다”고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이야기했다.

30살의 나이에 우석대학교 수석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그는 1부팀에서 사령탑 데뷔를 하게 됐다. 높은 무대에서 도전을 앞둔 그에게는 ‘선수 등록 금지’라는 악재가 있다. 연대기여금 미납 정계로 상반기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이정규 감독은 훈련과 팀워크를 통해 시즌 초반을 이겨나가겠다는 각오다.

이정규 감독은 “생각해 둔 목표는 상위 스플릿 A 진출이다. 훈련을 통해 점차 선수들과 목표를 정하려고 한다. 지금 선수 영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어떤 핑계도 대고 싶지 않다. 많이 어렵겠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1차 동계훈련 때 계획한 수비적인 부분 잘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 보수적인 수비를 선택하기보다는 공격적인 수비를 선택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핑계 없는 도전을 언급했다.

광주는 5일 태극 후아원으로 출국해 26일까지 1차 동계 훈련을 한다. 이어 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남해에서 2차 훈련을 갖고 팀 전력을 완성할 계획이다. 새로운 준비에 앞서 이정규 감독은 코칭스태프 인선도 마무리했다.

김광석 코치, 이상용 코치, 김병근 골키퍼 코치, 박근영 피지컬 코치, 김기현 분석 코치가 이정규 감독과 호흡을 맞춘다.

김광석 코치는 2023년 포항에서 데뷔해 K리그 통산 451경기에 출전한 ‘레전드’ 출신이다. 2022년 현역 은퇴 후 인천과 전북에서 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쌓았다.

이상용 코치는 성남 U15 감독, U18 수석코치를 역임했고, 2024년부터 2년간 수원에서 코치를 맡았다.

두 코치는 이정규 감독을 보좌하면서 팀 전반

적인 운영에 힘을 보태게 된다.

김병근 골키퍼 코치는 인천하이텍고, 세종스포츠도, 충남아산, 경남 등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으며 박근영 피지컬 코치는 대전, 전북, 그리고 베트남 국가대표팀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김기현 분석코치는 독일에서 스포츠학을 전공했으며, 독일 유소년 지도자를 시작으로 FC목포, 전북 등에서 코치 및 전력분석관으로 근무했다.

이외에 김광태, 박순호, 이인성 의무트레이너, 서정민 전력분석관으로 ‘이정규호’가 구성됐다.

이정규 감독은 “감독이 되면 직접 찾아가서 선수들을 뵈고 내 축구에 대해 설명드리고 선임을 하는 게 목표였다. 그래서 모두 직접 만나서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코칭스태프 인선에 대해 설명했다.

역사적인 지난 시즌을 함께 했던 주축 선수들의 이탈 속에 광주는 새 시대를 맞는다. 위기의 시즌이지만 반대로 선수들에게 기회의 시즌이기도 하다. 이정규 감독은 선수들을 믿고 ‘광주’를 이어나갈 각오다.

이정규 감독은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 ‘너희들이 있었기에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광주는 특정 선수로 하는 팀이 아니고 하나가 돼서 하는 팀이다. 선수들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며 “동계훈련가서 질문할 것을 공유했다. 광주FC는 어떤 팀인지 물어보겠다고 했다. 광주 만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얼마만큼 선수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지가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관성이다. 일관성을 잊지 않고 준비과정에서 충실하자고 이야기했다. 선수들에게 나이는 상관없다고 했다. 누구나 경쟁을 해야 하고, 그 기회는 훈련장에서 나타난다”며 “나는 훈련을 믿지 선수들 믿지 않는다. 젊은 선수한테 분명히 기회가 될 것이다. 다 동등한 입장으로 시작을 할 것이다”고 경쟁이라는 과정을 통한 기회와 결과를 강조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



‘저미손’ 김경민, 광주 골문지기 3년 더

풍부한 경험 큰 힘…J리그 출신 이윤성 영입도

‘저미손’ 김경민(34·사진)이 3년 더 광주FC의 골문을 지킨다.

프로축구 광주FC가 김경민과 3년 연장 계약을 맺고 2028까지 동행을 이어간다.

2014년 제주를 통해 프로에 데뷔한 김경민은 이후 부산에서 임대 선수로 뛰었고 포천시민구단에서 군복무를 했다. 이어 서울이랜드를 거쳐 지난 2022년 광주에서 전성기를 열었다.

광주 입단 첫 해 주전 골키퍼로 자리를 지킨 그는 34경기에 나와 16차례 클린시트를 장식하는 등 28실점으로 활약을 과시했다. 김경민의 활약을 앞세운 광주는 이 해 25승 11무 4패(승점 86), 40경기 68득점 32실점의 성적표를 장식하면서 K리그2 최다승·최다 승점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최소 실점 1위 타이틀도 광주 몫이었다. 2위 FC안양 보다(41실점) 8골이나 덜 허용한 광주

는 다이렉트 승격에 성공했다.

김경민은 광주에서 첫 시즌 K리그2 베스트11로 이름을 올리는 등 침착한 경기 운영과 선방 능력으로 뒷문을 지키고 있다.

그는 빌드업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정효불’의 시작점 역할을 담당했다. 2024년에는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아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5·6차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33세에 ‘늦깎이 국가대표’로도 이름을 올렸다.

시즌 중반 안와골절 부상으로 공백이 있었지만 김경민은 올 시즌 33경기에 출전하는 등 K리그 통산 198경기에 나와, 200경기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정규 감독 체제로 새로 출발하는 광주에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김경민의 잔류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김경민과 재계약을 마무리한 광주는 승리 수성

을 위해 ‘젊은 피’도 수혈했다.

광주는 J리그 사간토스, YSCC 요코하마 등에서 활약한 골키퍼 이윤성(20)을 영입했다.

총의중-의정부 G스포츠클럽 출신인 이윤성은 2024년 사간토스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했고, 이후 요코하마로 임대 이적해 경험을 쌓았다. 그는 안정적인 기본기와 경기 이해도를 바탕으로 꾸준히 경기에서 나서면서 성장세를 보였다.

188cm의 신장을 갖춘 이윤성은 뛰어난 제공권 장악 능력을 바탕으로 공중볼 처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 무대를 통해 경기 운영 템포와 조직적인 수비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더한 그는 안정적인 빌드업과 넓은 뒷공간 커버 능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윤성은 광주의 상반기 선수 등록 금지 징계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팀의 전술 이해도를 더하고, 적응의 시간을 보낸 뒤 경기에서 나설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6년 기대해!…전남드래곤즈, 공·수 재정비

김범수·이준희·송호·조영광 영입…뛰어난 피지컬에 멀티 능력 갖춰

‘박동혁호’를 떠난 전남드래곤즈가 새 얼굴로 전력 재정비에 나섰다.

전남드래곤즈가 김범수(25·FW)와 이준희(33·GK)를 영입해 공수를 강화했다. ‘2004년생 수비수 듀오’ 송호(22)와 조영광(22)으로 U22 자원도 보강했다.

포항에서 임대 영입한 김범수는 172cm, 63kg으로 체격은 작지만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드리블과 침투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는 크랙형 측면 공격수다. 그는 서울 중랑FC(K4)에서의 활약을 앞세워 2022년 제주를 통해 프로 무대에 진출, U22 자원으로 15경기(1득점)에 출전했다. 이후 2023 시즌 안산으로 이적, 두 시즌 동안 61경기에서 6득점 7도움을 기록했다. 지난해 포항으로 이적한 김

범수는 성남에 임대돼 26경기에서 3득점을 만드는 등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에 기여했다.

전남은 폭 넓은 움직임으로 역습과 공간 창출에 능하고, 득점력도 갖춘 김범수와 함께 기존 자원인 정지용과 르본을 묶어 측면 공격에 파괴력을 더할 계획이다.

포항 U18 출신인 이준희는 인천대를 거쳐 2015년 포항에 입단했다. 그는 2016년 경남으로 이적한 뒤 3시즌 동안 27경기(30실점)에 출전하며 2017 시즌 K리그2 우승 멤버로 활약했다.

2019년 대구로 팀을 옮긴 이준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시흥시민축구단과 진주시민축구단에서 복무했고, 2024시즌에는 안산 소속으로 21경기(24실점)에 나와 4차례 클린시트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경주한수원(K3) 소속으로 코리아컵 2경기 포함 28경기에 출전했다.

이준희는 192cm, 89kg의 뛰어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공중볼 처리에 능하고, 장악력이 뛰어나다. 또 공격적인 성향으로 턴 오버 상황에서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 범위가 넓어 위기 상황 대처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전남은 송호와 조영광을 각각 우선지명 선발과 임대 영입하며 U22 자원을 확보하고, 전술적 다양성도 더했다.

유스 출신의 송호는 전남 U15, U18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했고, 2023년 선문대에 진학한 뒤 센터백으로 변신했다.

원발잡이 센터백인 송호는 수비 라인에서의 빌드업 전개 능력과 경기 조율 능력으로 2023년 태백산기 제18회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2024년 백



김범수

이준희

송호

조영광

두경기 제60회 추계대학연맹전과 U리그 왕중왕전까지 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그는 또 매서운 패스와 킥 능력을 바탕으로 후반에서 공격 전개를 이끌 자원으로 기대를 받는다.

보인고 출신의 조영광은 2023년 프로에 직행해 서울 유니폼을 입었다. 꾸준하게 연령별 대표팀에서 활약한 그는 김은중 감독이 이끈 2023 FIFA U-20 월드컵에서 5경기에서 나서 4강 신화를 만들었다.

2024년 FC오사카(J3) 임대 선수로 4경기를 뒀던 조영광은 올 시즌에는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전남에서 K리그 데뷔전을 준비하게 됐다.

조영광은 사이드백과 원포워드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크로스가 강점이다.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대결에서 몸을 아끼지 않는 허슬 플레이도 돋보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